

#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과거’의 매혹적 만남

— 한국 개념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 —

이행훈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 1. 왜 개념사를 말하는가

인문학 전반이 침체되어 가는 지금에도 세계사적 보편성과 세계적 학문을 습득해야 한다는 20세기 초의 강박은 여전히 되풀이되는 듯하다. ‘진보’와 ‘진화’의 신화 속에서 문명개화가 시대적 사명이었던 과거는 획일화된 가치를 좇는 편향적 학습과 배타적 경쟁의 소용돌이로 재현되고 있다. 어떠한 가치인지, 왜 추구해야 하는가란 물음은 잠시 보류에서 영원의 무덤 속에 잠재어져 들리지 않는다. 본질적 질문에 기능적 대답만이 맴도는 깨지지 않는 의식으로 새로운 사고와 창의적 학문을 기대할 수 없다. 학문의 창조적 열림은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공존하는 가운데서 출발한다. 동서라는 이분법을 넘고, 역사와 문화를 고정된 실체로 보았던 인식을 전환하여, 유동하는 문화 속에서 대등한 주체와 주체 사이의 접속이 이루어질 때 새로운 사유의 지평이 목전에 펼쳐질 것이다.

최근 학계에 회자되는 개념사는 여기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개념사 연구가 소통의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그것이다. 개념은 언어로 재현된 사고의 표현물로서 개념사 연구는 과거의 경험이 응축

되고, 미래에의 기대를 담은 역동적인 개념(어)에 주목하여 개념을 사용했던 주체와 의미의 변동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사회·정치사와 결합한다. 이 과정에서 자명하고 확실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여겨졌던 개념이 실제로는 매우 다층적이며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전승되고 집적된 지식의 실체를 심층에서 재사유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개념사 연구의 매력은 이렇게 '과거의 현재'를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과거'를 새롭게 사유하는 데 있다.

개념사 연구의 일차적 과제가 역사 현실에서 주체가 맞이한 개개의 현실을 재현하는 데 있다면, 궁극적 과제는 공통의 기반을 탐색하여 소통의 계기를 확인하고 확산하는 작업이 되어야지, 개념이 지닌 사회·정치적 역동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개념을 선취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타자를 강제했던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공통의 기반을 찾는 작업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 라이하르트가 주목했던 것처럼 비근한 일상세계에서 발견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 조건에 안주하지 않고 다른 세상으로의 탈주를 꿈꿨던 다양한 지점들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와 철학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 종교와 과학 등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사고의 단초를 찾아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때, 개념사 연구는 단지 학문의 모방과 추수가 아닌 모두의 인문적 자산이 될 것이다.

## 2. 수용하고 극복해야 할 典範들

개념사 연구는 개념의 순수 이론이나 초월적 관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회사와 결합한 연구방법을 통해 개념의 역사적 의미론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사적 탐색은 개념을 토대의 반영으로 환원하지 않으며 언어 구조가 하나의 초월적 동인이 되어 우리의 존재양식을 규정한다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대신, 개념은 사회 구조를 등록하는 지표이자 사회의 변화

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사회사적 접근을 동반해 그 사용 주체와 대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sup>1)</sup> 기존의 사상사나 지성사, 사회사와는 달리 인간 사고의 발현인 언어와 그 구축물로서 개념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는 개념사가 포착하는 개념은 정치, 사회, 문화의 변동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개념들로서 '복잡성', '모호성', '다의성', '지속성', '변화성'을 특징으로 하며, 당대인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응축하여 실재를 가리키는 지표이자 실재를 역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요소가 된다.

개념사 연구의 기틀을 연 기념비적 저작은 중세 법제사가 오토 브루너(Otto Brunner), 사회사가 베르너 콘체(Werner Conze)와 함께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d Koselleck)이 주도한 『역사적 기본개념: 독일의 정치·사회적 언어 역사사전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이다. 코젤렉은 1750년부터 1850년까지 유럽에서 개념들의 의미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서 근대 세계와 그 이전을 나누는 근본적인 단절이 발생했음에 주목하여, 이 시기를 '말안장 시대(Sattelzeit)' 또는 '문턱의 시대(Schwellenzeit)'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유럽에서 근대, 특히 18세기 무렵부터 개념이 '경험 공간과 기대 지평'이라는 두 차원을 가진 '운동 개념'이 되었음을 드러냄으로써 근대성의 특징과 본질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코젤렉(1923~2006)이 역사학의 한 분과로서 발전시킨 개념사(Begriffsgeschichte)는 언어와 정치·사회적 실재, 혹은 언어와 역사 사이의 상호영향을 전제한 채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탐구하는 역사의 미론(historical semantics)의 한 분야다.<sup>2)</sup> 『역사적 기본개념』은 1972년부터 25년에 걸쳐 119개 항목 총 8권으로 출판되었으며, 항목으로 선정된 개념들은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의 실현과 기대지평을 넓히는 지적 무기였다. 그러나 백과사전식 편제로 인해, 개별 개념의 역사를

1) 멜빈 릭터, 2010, 「유희인 서문—개념사적 접근과 한국 근대」,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비판적 소개』, 송승철·김용수 역, 소화, 9~15쪽.

2) 나인호,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연구」, 『내일을 여는 역사』 제41호, 275쪽.

넘어 개념 사이를 횡단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코젤렉의 개념사가 '위대한 사상가'의 '위대한 저작'만 다루어, 사상에 가까워졌다고 비판한 롤프 라이하르트(Rolf Reichardt)는 한스 위르겐 뤼제브 링크(Hans-Jürgen Lüsebrink)와 함께 『프랑스 정치·사회 기본개념 편람 Handbuch politischer-sozialer Grundbegriffe in Frankreich, 1680~1820』을 편찬하였다. 이는 프랑스 혁명 전후(1680~1820)의 약 150년간을 대상으로 하여 어휘 통계를 통해 개념 항목을 귀납적으로 추출하였고, 개념사를 사회사의 아래에 두며 심성사의 연속자료사(serial history)의 방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기본개념』과 다르다. 항목 서술에서도 시각적·비언어적 표현양식과 행위방식을 포함하여 다소 낮설고 보다 민중적인 형태의 정치 저술들(정간물, 전단, 집회보고서, 교리문답, 연감, 풍자, 노래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과 밀착한 개념 및 당대에만 쓰이던 개념을 포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sup>3)</sup>

한국 개념사는 이러한 역사 의미론의 이론과 방법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근대 동아시아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개념의 전파, 충돌, 접합, 생성, 전유 등을 사회·정치·경제·문화의 변동과 연결하여 개념의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라인하르트 코젤렉, 롤프 라이하르트, 포콕(John G. A. Pocock)과 스킨너(Quentin Skinner)의 정치사상사 연구를 개념사의 시각에서 조망한 멜빈 릭터는 코젤렉이 정치·사회적 개념과 구조적 변화를 연결한 점, 라이하르트가 심성의 역사와 개념의 위상에 주목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포콕과 스킨너의 작업이 개념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멜빈 릭터, 앞의 책).

### 3. 고려해야 할 전제들

20세기 한국은 전통의 급속한 해체, 식민지배, 분단과 이념 갈등, 산업화와 민주화를 숨 가쁘게 경험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전통 지식 체계와 문화는 해체되고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개념이 있다. 따라서 개념을 둘러싼 주체들의 실천과 개념의 운동과정을 제대로 탐구하지 않은 채 한국 인문학의 도약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제분야가 근대적 학문으로 형성된 과정을 재성찰할 필요가 있음에도 각 주제의 내재적 요소에만 천착할 뿐 학문의 근간이 되는 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학계의 동향은 한국 개념사가 한국학 연구의 토대가 될 새로운 방법론이자 개척해야 할 중요한 연구분야임을 옹변하고 있다. 바야흐로 '개념사 연구' 없이는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근대처럼 변화가 극심한 '위기의 시대'일수록 '민족', '국가', '시민', '사회', '민주주의' 등과 같은 '기본개념'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되기 마련이며, 한국의 근대시기 역사 주체들이 이 용어들을 개념화하는 방식도 주체의 행동양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김용구는 "한반도라는 장소에서 인문·사회과학의 근대적인 기본개념 형성에 중요한 시기는 1850년에서 1950년에 이르는 100년이며, 이 시기의 개념들은 첫째, 19세기 중엽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생소한 개념들, 둘째, 19세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개념들이 본래의 내용이 굴절되어 새로운 현상을 지칭하게 된 개념들, 셋째, 19세기 중엽을 전후해 사라진 개념들 등 셋으로 나눌 수 있다"<sup>4)</sup>고 보았다.

한국 개념사 연구의 지향점은 한국 근대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개념들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이 기본개념들의 의미 변화 및 연관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근대를 재성찰하는 데 있다. 한국 개념사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유의할 필

4) 김용구, 2008, 『민국공법』, 소화, 19쪽.

요가 있다.

우선 근대 지식과 학문을 생산 유통시킨 제국과, 제국을 문명의 전범으로 삼아 모방한 식민이라는 단방향적 구조로 전파자와 수용자를 정형화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설령 문화의 위계를 가정한다고 해도 모든 문화는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하며,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포섭·동화되었다 손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포섭된 문화는 포섭한 문화에 변동을 야기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제국과 식민의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의 욕망과 능동적 실천에 따라 개념을 각기 '상호 전유(mutual appropriation)'하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하나의 단어가 개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는 그것이 산생된 시간(tempo)과 공간(topos)의 무게가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무게는 횡적으로만 가늠되어서는 안 되고 종적으로도 가늠되어야 한다. 횡적 측면은 '언어횡단적 실천(translingual practice)<sup>5)</sup>과 관련되며, 종적 측면은 산포되어 있는 역사로부터 전승된 '현존하는 과거(present past)'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현존하는 과거'와 '과거의 현재(past present)' 사이의 개념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sup>6)</sup> 식민지인들이 제국을 자신의 욕망으로 내재화하였더라도 전통의 지식체계와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즉 서구 근대 개념의 유입은 동아시아 한자 및 유교 문화권의 지식 체계에 변동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 전통 지식 체계에 맞닿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 근대 개념사 연구는 서구 근대라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한 개념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상황을 거쳐 유입됨으로써 중첩된

5) 리디아 리우(Lydia Liu)는 '언어횡단적 실천'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동서의 문화교차적(cross-cultural) 해석과 언어적 매개의 형식에 대한 재사유의 가능성을 높였다(2005,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3~11쪽 참조).

6) '과거의 현재'란 과거 사람들이 그 당시 사실이라고 믿었던 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라고 믿었던 바, 즉 과거의 경험, 예상, 회상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과거 사람들이 그 당시의 현재에 관해 언급할 때 마음속에 지니는 바를 뜻한다(루치안 힐서, 김성호 역, 2009, 『개념사의 개념과 『역사적 기본 개념』,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17쪽 참조).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사 연구가 지향하는 근대성에 대한 탐구의 최종 도출물이, 근대의 기원이라는 유럽중심주의적 사고로 회귀하여 주체성을 잃고 타자에 복무하게 될 위험성과 '학문적 주권(academic sovereignty)'의 추구나 '지식의 권력화(knowledge empowerment)' 경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개념의 기원과 그 자체의 보편성에 주목하다 보면, 타자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창조적 오독'의 경우는 물론이고, 서구 근대 개념에 대한 주체의 잠재적 또는 의도적 영향을 세밀히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학이든 역사든 철학이든 서구 근대의 학문 개념으로 자신의 학문을 계보화한다면 자칫 '기원'에 대한 신화적 해석을 야기할 수 있다. 기원은 어느 시기 어느 공간에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이미지로 표상되고 반복될 뿐이다. 따라서 문학의 계보학, 역사의 계보학 나아가 지식의 계보학과 관련하여 근대 이행기 개념 소통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종횡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신화적 해석을 해체하고 근대를 재성찰할 수 있으며 자국(自國)을 넘어서는 소통의 인문학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sup>7)</sup>

#### 4. 연구들과 협업의 필요성

개념을 통한 근대 경험과 근대성에 대한 주체적 성찰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개념사 연구는 일국사의 틀을 넘어서서 개념의 번역과 문화적 전위라는 통언어적(translingual) 실행과 개념의 비교사에 초점을 맞추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연구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의 성립과 함께 유럽 공동의 개념사 사전을 만들려는 유럽 정치사전 프로젝트가 구상되

7) 이행훈, 2009, 「근대 이행기 타자 이해와 소통구조」, 『개념과 소통』 제3호, 150쪽.

면서 독일의 뢰셔(Lucian Hölscher)는 개념의 다중심적인 비교사를 제안하였고, 브라질의 호아오 페레스(João Feres Júnior)는 비교사적 관점에서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4개국에서 진행된 개념의 번역과 수용·변형·형성의 문제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과 영미권이 아닌 식민의 경험을 지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페레스의 연구는 브라질의 전통 개념이 식민 통치로 인해 억압된 사정과 서구 개념이 브라질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향후 한국 개념사 연구와 비교·공유 가능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핀란드의 후원으로 국제 개념사 연구 단체인 '정치·사회적 개념사연구회(HPSCG)'가 창설되어 매년 개념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연구회가 후원하는 '국제 개념사 및 정치사상 연구원(CONCEPTA)'이 창설되어 활발한 학술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회는 2005년 페레스의 주도 하에 브라질의 칸디도 멘데스 대학 소속 '리오데자네이로 페스퀴사스 대학연구소(IUPERJ)'의 후원으로 국제 개념사 잡지인 『개념사 논고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Concepts』를 창간하였다.<sup>8)</sup>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현재 18세기 중엽 이후 신조어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연구 중이고, 대만 국립정치대 진관타오(金觀濤)와 홍콩 중문대 류칭평(劉青峰)은 『관념사연구(觀念史研究: 中國重要政治術語的形成)』를 출판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관념이란 '키워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사상'이다. 관념은 고정된 키워드를 사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상보다 확정적이고 명확한 가치지향을 지니며, 사회적 행위와의 관계 또한 사상의 경우보다 더 직접적이라고 한다. 또한 이데올로기를 키워드와 관념의 상위에 위치시키는데, 한 시대의 사회통합을 이룬 이데올로기는 동 시대 여러 관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철학계의 통계학파'라고 불릴 정도로 어휘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데이터베이

스에서 키워드를 검색하여 연대별 사용빈도를 통계처리하고, 키워드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여 해당 키워드가 시기별로 사용된 의미의 유형과 변화를 파악하며, 이를 근거로 해당 관념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한다. 1권인 '이론과 방법' 편에는 집필취지, 연구방법, 근현대정치용어 100선, 통계분석에 대한 논의를 실었고 2권인 '관념의 변천과 용어' 편에서는 '권리', '개인', '사회', '세계', '민주', '경제', '과학', '혁명' 등 중국의 현대성을 구성하는 굵직한 핵심 용어의 형성과 정착과정을 분석했다.

일본에선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개념 20개를 분석한 『한 단어 사전(一語の辭典)』(三省堂, 1995~2001)을 출판하였으며,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의 『일본의 「문학」 개념』(作品社, 1998)은 기존의 일본근대 문학사에 대한 비판과 '문학' 개념을 대체할 '문예' 개념, 그 근본이 되는 표현개념의 재편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는 황종연이 「문학이라는 역어(譯語)－「문학이란 何오」 혹은 한국 근대 문학론의 성립에 관한 고찰」(『동양어문논집』 32집, 1997.12)을 발표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문학' 개념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 입문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 문학 개념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최원식, 송호근, 정선태, 한기형, 류준필, 김현주, 이경돈, 황호덕, 김지영 등의 연구는 일독을 요한다. 국문학계의 문학 개념 및 체계에 대한 연구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신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은 연구 성과들이다. '청년', '연애', '기차', '위생', '가요' 등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을 중심으로 한 풍속문화론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풍속문화론적 연구들이 문화적 표상에만 집중하여, 동시대 사회사·정치사와의 연관관계나 유사 개념들을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개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쉽지만 정치·사회 구조에 매몰되지 않고 당대를 살던 주체들의 기억과 서사를 흥미롭게 재현하고 있는 점은 한국 개념사 연구에 적잖은 시사를 준다. 특히 고지현과 김지영은 구미 개념사에서 집중해 온 기본개념의 범주를 넘어 일상 개념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이론 모색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

8) 나인호, 앞의 논문, 290~291쪽 참조.

목에 값한다.<sup>9)</sup>

19세기 사회과학 개념의 도입을 증점적으로 연구해 온 하영선은 '한국의 개념사 연구 모임(전파연구 모임)'의 성과를 모아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창비, 2009)를 출판하였다. 그는 개념사를 '현실과 개념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개념의 선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그동안 모임에 참여해 온 연구자들의 '문명', '권력', '주권', '부국강병', '세력균형', '평화', '국민/인종/민족', '민주주의', '경제', '개인', '영웅' 개념 연구를 싣고 있다. 사회과학 개념 연구로 주목해야 할 하나의 기획으로 『Vita Activa: 개념사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이 시리즈는 한국 사회와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되는 사회과학 개념 총 30개를 선정하여 그 의미와 역사, 실천적 함의를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념의 역사와 사회의 역사가 분리될 수 없고, 개념은 만들어진 역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일부로 보는 점은 개념사의 일반적 공리와 동일하다. 다만 '비판적 인식'과 동시에 '실천적 지성'에 부응한다는 기획에 따라, 현재 사회에서도 매우 역동적인 개념들을 다수 선정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들 개념은 크게 기본관념, 제도, 사건, 쟁점 네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기본관념에는 '공화주의', '노동가치', '민족주의', '생태주의', '유토피아', '자본주의', '자유', '제국주의', '젠더', '지식인', '파시즘, 제도에는 '근대국가', '복지국가', '정당', '헌법', 사건에는 '냉전체제', '시민혁명', 'IMF 위기', '68 운동', '87년 6월 항쟁', 쟁점에는 '비정규직', '인종주의', '인터넷과 가상공간', '테러리즘',

9) 특히 김지영은 개념의 의미 변화라는 준거틀을 적용하여 일상 개념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는 풍속문화론적 표상 연구가 너무나 복잡다단한 연관관계 속에서 표상의 의미 작용에 천착함으로써 체계적인 의미질서로 복원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고고학적 접근 방식, 귀납적인 개념 추출, 언어와 실천의 관련성에 대한 세심한 고찰 등 라이하르트 방법론이 지니는 도구적 유용성을 구체화하여 다섯 가지의 방법론을 정식화하여 제기하였다(김지영, 2010, 『풍속·문화론적(문학) 연구와 개념사의 접속, 일상개념 연구를 위한 시론(試論)』, 『대동문화연구』 제70집).

'폭력'으로 구성하였다.

서구 개념사의 이론과 방법을 국내에 소개한 것으로는 이상신, 서규환, 나인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나인호는 코젤렉을 중심으로 한 독일 개념사를 언어혁명에 기반한 신문화사의 한 갈래로 분류하면서, 코젤렉의 개념사를 역사학의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강조한다. 그는 단순한 소개에만 머무르지 않고 비판적인 논쟁에도 참여하는데, 역사비평 편집위원회에서 본격적인 개념사 연구와 『역사적 기본개념』에 필적할 사전 편찬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은 『역사용어바로쓰기』(역사비평사, 2006)에 대한 서평이 좋은 예이다. 그는 여기서 개념사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석할 뿐이며, 개념사 연구의 출발점은 어떻게 근대의 경험을 올바르게 인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개념사 연구의 방법과 지향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Keyword"가 아직 번역되기 전에 개념사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함으로써 "Keyword" 및 개념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묶고 보완하여 펴낸 『개념사란 무엇인가』(역사비평사, 2011)는 개념사 연구 입문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sup>10)</sup>

철학분야에서는 <서구 철학사상의 유입과 그 평가>와 <철학 원전 번역을 통해 본 우리의 근현대>라는 2종의 기획 연구가 특기할 만하다. 양자 모두 다년간에 걸친 기획연구로서 한국 근대 '철학' 개념의 수용 양상을 탐색하

10) 이 책은 '개념사'의 문제의식과 주제, 이론적 설계 및 방법론적 연구 전략, 그리고 사례 연구로 구성된다. 1부 개념사란 무엇인가에서는 개념사의 기초가 되는 이론과 개념사 연구 방법과 의의를 설명한다. 여기서는 이념/관념과 개념의 차이를 밝히고, 담론과 개념의 관계, 단어와 개념의 차이, 개념과 실제 표상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개념사의 개념을 특징짓는다. 이후 코젤렉의 '기본개념의 구조사', 로프 라이하르트의 '사회사적 의미론',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핵심어 연구' 호아오 페레스의 '기본 개념이 아닌 개념의 연구' 등 개념사의 대표적 연구들을 분석한다. 2부 여섯 개의 개념으로 근대 읽기에서는 '근대', '문명과 문화', '미국과 아메리카니즘', '여자', '역사', '자본주의 정신' 등 근대를 화두로 한 개념사 사례 연구를 수록하여 근대 사회변화를 추동했던 주요 개념의 실재를 보여 준다.

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구 철학사상의 유입과 그 평가>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기획한 연구로서, 기관지인 『철학사상』에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총 23편의 논문이 특집으로 실렸다. 1998년 『철학사상』 제8호에는 그간의 연구를 총괄하여 “한국철학 근 백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제1부 서양철학 수용에 따른 전통철학의 대응 및 전개”, “제2부, 최근 백년 서양 철학 수용과 한국 철학의 과제”, “제3부 서양 철학 수용: 한국의 현실과 철학의 과제, 제4부 근 백년 한국철학의 교육과 제도”로 구성되었다. 2002년부터 3년간 진행된 <철학 원전 번역을 통해 본 우리의 근현대> 연구에 참여한 이는 김재현 외 15명이고, 1건의 단행본과 21건의 학술논문이 학계에 발표되었다. 다만 한국 근현대 철학의 성립과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철학’ 개념의 유입이 전통 지식 체계의 해체와 근대적 재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세부적 고찰이 다소 부족하고, 개별 연구자들의 전공과 분야별 특성으로 인해 서술 체계가 일관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라는 개념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지성사나 사상사 연구와 달리 개념사 연구자들이 참고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연구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던 한국 근대 개념사 연구는 2007년도를 전후하여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였다. <동아시아 기본개념의 상호 소통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그 중심에 있는데, 2005년도에 이미 본격적으로 실행한 <한국개념사총서> 편찬사업에 필진으로 참여하는 수십 명의 소장학자들과 문학, 사학, 철학, 사회과학 분야의 신진연구자 10여 명이 합세하여 실질적인 학제간 공동연구가 실현된 것이다.<sup>11)</sup>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 근대 개념의 역사와 의미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의 상호 소통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에 힘입어 전체 80여 개 항목으로 기획된 <한국개념사총서>는 김용구의 『민국공법』을 시작으로 『국가·주권』, 『헌법』, 『국민·인민·시민』, 『민족·민족주의』, 『문명』 등 2011년 현재 6권의 총서를

출판하였으며 현재 집필 중인 항목들이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sup>12)</sup> <한국개념사총서> 이제 ‘청년’(이기훈), ‘어린이’(조은숙), ‘행복’(권보드래), ‘교양’(천정환), ‘병’(신동원), ‘연애’(김지영) 등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영역을 관통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상 개념사 총서> 편찬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결실을 맺으면 일상 개념사가 풍속사, 문화사와 접속함으로써 그간 미시적 자료의 집성이나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다소 치우쳤던 단점이 역사의미론적 접근으로 보완되리라 기대된다.

개인 연구자들이 엄두를 못 냈던 코젤렉의 『역사적 기본개념』도 1차로 ‘문명과 문화’, ‘진보’, ‘제국주의’, ‘전쟁’, ‘평화’ 5개 항목이 2010년 번역·출판되었고,<sup>13)</sup> 멜빈 릭터의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진관타오·류칭평의 『관념사연구』, 정관잉의 『이언』 등 굵직한 자료들도 <개념소통번역시리즈>로 기획 출판되었다. <개념소통연구시리즈>로는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이 2009년도 출판되어 개념사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sup>14)</sup> 아울러 한림과학원에서는 2008년 『개념과 소통』을 창간, 연 2회

12) 제국·제국주의(이삼성), 문학(최원식), 종교(장석만), 경제(이현창), 시장(송호근), 외교(김용구), 공동체(김필동), 형식·내용(송승철), 진보(양일모), 역사(박근갑), 동아시아(백영서), 국왕·군주제(박광용), 교육(오성철), 보수(권용립), 독립·자주(최창희), 사회·시민사회(박명규), 문화(김현주), 철학(김재현), 국어(이병기), 자유·자유주의(강명희), 민속(남근우), 노동(김경일), 실학(이경구), 민중(허수) 등의 항목을 집필 중이다.

13) 여기에 더하여 계몽(Aufklärung), 해방(Emancipation), 역사(Geschichte), 위기(Krise), 근대·근대성(Modern·Modemität), 혁명(Revolution), 개혁·종교개혁(Reform·Reformation), 민주주의(Demokratie), 독재(Diktatur), 보수주의(Konservativismus), 자유주의(Liberalismus), 공화주의(Republik), 사회주의(Sozialismus), 노동·노동자(Arbeit·Arbeiter), 경제(Wirtschaft), 무정부주의(Anarchie) 항목이 번역 출판될 예정이다.

14) 개념사의 주요 이론과 방법을 소개하는 입문서이자 논쟁과 전망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서다. 루치안 힐서는, 언어 의미론과 사회적 구조 변동의 상관 관계를 질문하면서 근대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성찰적으로 다루는 개념사 사건의 위상을 밝히고, 박근갑은 ‘역사’ 개념을 사례로 근대 세계의 동력을 새롭게 조망하는 개념사의 인식론을 다룬다. <프랑스 정치·사회 기본개념 편람 1680~1820>을 주도하는 롤프 라이하르트트는 ‘사회사적 의미론’을 통해 개념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김학이는 라이하르트트의 공과를 분석하여 개념사 방법론의 지향점을 의제화한다. 고원은, ‘담론’ 분석과 ‘개념’ 해석 사이

11) 「인문학 뉴 트렌드 <2> 개념사 연구」, 『동아일보』 2008년 3월 12일자.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한국 개념사의 현황과 과제”(제1호), “‘문명’ 개념의 형성과 전파”(제2호), “개념 소통의 철학적 기반과 역사적 경험”(제3호), “동아시아 개념의 절합과 횡단”(제4호), “일상개념 연구의 이론과 실제”(제5호), “동아시아 문명의 근대적 전환”(제6호) 등을 의제화하여 개념사 연구 전문 학술지의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다.

이 밖에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이 <동아시아 개념어 총서> 기획의 일환으로, “개념편성사의 의의와 방법”에 대한 토론을 열었고,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주최 “근대와 폭력”을 주제로 트랜스내셔널 일상사 워크숍과 “민족사적 특수성? 탈식민적 해체의 모색”(2010) 국제학술대회 등은 개념사 연구와 접속 가능하다. 그 외, 부산대 인문정보학센터 주최로 열린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국어 이중어 사전의 재인식”(2010)은 한국 근대 개념사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다룬 연구이며,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주최 “근대 전환기 ‘한국 사회과학’ 수용의 주체와 문제의식”(2011)과 동국대의 초국가주의와 문화번역연구단의 학술활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주최 “서구 문명의 수용과 동아시아 지성의 변모” 및 “동아시아 인문지성의 전통과 변용”(2011) 등도 한국 개념사 연구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향후 협업이 모색되어야 한다.

## 5. 과제들, 연구 방법의 정초와 전망

코젤렉의 사전을 비롯한 개념사 연구는 볼프 라이하르트, 스키너와 포콕, 멜빈 릭터 등의 서양 연구자들과 국제 개념사 학회인 HPSCG의 활동 및 진

의 연결지점을 탐색하고, 나인호는 ‘자본주의 정신’을 사례로 개념사 연구의 실재를 보여 준다. 끝으로, 멜빈 릭터(Melvin Richter)는 ‘상호 문화적’ 번역과 전이의 지형으로 나아가는 개념사의 전망을 제시한다.

관타오·류칭핑, 스즈키 사다미 등 동아시아 연구자들을 연계하면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한국 개념사 연구를 위해서는 저들과 다른 시간과 공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구 중심의 세계사에 편입된 동아시아는 근대적 시간대의 뒷자리에 놓였다. 문명개화의 열망은 ‘진보’와 ‘진화’의 신화에 자신을 투사하게 하였고 전통 지식체계와의 충돌은 동도서기(東道西器), 신구학논쟁(新舊學論爭)을 낳았다. 19세기 후반 이후 서구 근대 문물 수용은 대체로 중국과 일본을 경유하였는데, 한자어로 된 개념어는 당시 지식인에게 친숙하여 수용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지만, 일제의 강점에 의해 주체적인 번역과 해석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반쪽의 근대화를 이룬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근대 동아시아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개념사 연구 방법과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서구에서 생성된 개념이 중국과 일본을 경유하여 국내에 소개 유통됨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굴절이 발생하였고 식민과 탈식민의 구조적 문제가 잠재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전통 개념의 연속과 단절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 지식 체계가 구축되고 재편되는 과정과 한국 근대 학문의 형성 과정은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 둘 사이에 존재하는 단층은 한국 학술 문화에 점철된 고질적인 불소통의 기원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개념의 의미체계 및 개념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념사는 무엇보다 개념의 운동에 주목한다. 이는 하나의 단어가 개념으로 정착하기까지 수반되는 의미투쟁과 연관 개념, 대립 개념, 병렬 개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등을 분석함으로써 분명해질 것이다. 넷째, 일상의 생활 문화영역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상의 생활세계는 단순히 대중문화가 소비 유통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재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일상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일상 세계와 대중문화로부터 ‘기본개념’을 추적한다면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다섯째, 국내외에서 집적되고 있는 근대 학술 용어 및 개념 관련 DB를 통합하는 archive 구축과

운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sup>15)</sup> 개념사 연구의 핵심인 언어의 사회사적 접근과 역사미론 분석은 개인이 수행하기 어렵다. 방대한 자료의 집적과 학제간 연구가 병행될 때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개념사의 특징 중 하나는 언어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공시적·통시적 분석을 교대로 사용하고, 총의론(특정 언어가 가진 모든 의미에 관한 연구)·총칭론(특정 언어 내에서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는 모든 용어에 관한 연구), 의미장 이론을 사용해 분석한다. 따라서 개념의 용례 및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의 집적과 분석을 통해 개념사 연구가 과거와 현재적 용법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수적이다.<sup>16)</sup> 종래 언어에 대한 개념사적 취급 방식은 언어 일반보다 정치·사회적 언어에 더 주목하여, 학술 용어나 일상 대중문화 영역에서 생산되고 소비·유통된 언어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였다.

한국 개념사 연구는 이처럼 방법론을 정초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최근 개념사 연구의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고 연구자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연구 전망을 대신하면서 글을 마치려 한다. 우선 '번역(translation)'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상이한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는 이문화권

15) 한국언론재단,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은 개념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DB를 서비스한다. 각 기관이 DB는 기사제목, 기사형태, 필자, 날짜, 호수, 잡지(기사)명으로 검색 가능하고, 자료의 재분류 기능도 제공하지만, 해당 텍스트를 세밀히 읽고 개념의 사용 주체, 내용, 지시대상 등을 분석하지 않으면 검색·추출된 결과물의 역사미론적 활용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휘통계학(lexicostatics)을 개념사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통해 접하게 되는 다종의 기의에 대한 계열화 및 외래어와 번역어 사이의 다양한 의미 층위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개발하고 DB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가 된다.

16) 近現代漢語學術語研究(<http://mcst.uni-hd.de/>),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중국의 과학, 철학, 정치 관련 용어의 번역과 출현 문헌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中國近現代思想及文學史 1830-1930 專業數據庫計劃(<http://dsmc1.nccu.edu.tw/>), 중국 근현대 사상·문학사 1830-1930 전문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밖에 HPSCG(<http://www.hpscg.org/>), 정치사회개념사학회(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 Group)와 CONCEPTA(<http://www.concepta-net.org/>), 국제 개념사 및 정치사상 연구원(International Research School in Conceptual History and Political Thought) 홈페이지도 참고가 된다.

간의 문화 전이는 늘 변용을 수반하는데,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와 가토 슈이치(加藤周一), 리디아 리우(Lydia H. Liu), 더글라스 하울랜드(Douglas Howland), 요아힘 쿠르츠(Joachim Kurtz) 등의 연구에 주목해야 한다. 가토 슈이치는 번역이란 외국의 개념과 사상의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항상 자국의 전통에 의한 외래 문화의 변용이라고 보았다.<sup>17)</sup> 리디아 리우는 이를 '언어횡단적 실천(translingual practice)'으로 설명하였다. 영어에서 일본어로의 개념 전이를 연구한 더글라스 하울랜드는 타문화권 번역(cross-cultural translation)이 더 이상 2개 국어 사전 모델에 근거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단어나 텍스트의 단순 전이로 다루어질 수 없고, 초언어적(translingual) 소통의 복합적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 요아힘 쿠르츠는 이를 '번역과 전유의 다층적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근대 중국어에서 애초에는 외래 개념의 번역으로 도입된 많은 용어들이 이후 자체의 생명력을 띠고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서구적 원본들을 창조적으로 변화, 확장하거나 심지어 침식하기도 했음을 지적한다.<sup>18)</sup> 이들의 연구는 원본텍스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하였는가를 문제 삼기보다는, 문화 교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상호 전유와 개념을 둘러싼 의미의 다층적 전개 양상이 연구의 중심에 놓인다.

다음은 '은유(metaphor)'와 '개념'의 관계다. 은유는 개념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역사를 지닌다. 왜냐하면 한 은유의 역사적 변화는 그 자체로 역사과정의 의미지평과 관찰방식의 메타동력학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는데, 그 안에서 개념들이 변이를 겪기 때문이다. 은유는 "개념형성의 앞마당에서" 규정되지 않은 채 임시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생생한 경험세계의 토대를 이루는 구조와 전체성과 접촉하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본질적인 역사서술의 대상"이 된다. 은유는 개념과 달리 지시 기능보다는 실천하는 기능

17)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옮김, 이산, 178~179쪽.

18) 멜빈 린터 저, 황정아 역, 2010, 「개념사, 번역, 그리고 상호 문화적 개념 전이」,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193쪽.

을 지니고, 주어진 이해의 지평에 내재하는 균열의 지점들을 지목한다는 점에서 현실세계를 직접적으로 해명하는 개념 대상의 부재공간으로 밀고 들어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호로서 주목해야 한다.<sup>19)</sup>

마지막으로 '내러티브(narrative)'의 문제다. 롤프 라이하르트는 『프랑스 정치사회 기본개념 편람』을 편찬하면서 사전, 정간물, 전단, 집회보고서, 교리문답, 연감, 풍자, 노래 등 대중적 사료로 연구 대상을 확장했다. 내러티브는 언어와 문자 중심의 기호체계를 넘어서 비문자적 표현방식까지 포괄하는 서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본개념 편람』의 문제의식과 공명할 수 있다. 따라서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만화, 무용 등이 재현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표상의 서사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통해 기억(memory)이 재생산되고 미래를 규정해 나가는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역학과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19) 박근갑, 2010, 「개념의 역사에서 은유의 역사로?」, 『개념과 소통』 제6호, 195~202쪽.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용구, 2008, 『만국공법』, 소화.
- \_\_\_\_\_,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 정치학: 동양 禮와 서양 公法』, 나남출판.
- 김효전, 2009, 『헌법』, 소화.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 노대환, 2011, 『문명』, 소화, 2011.
- 라인하르트 코젤렉, 1998, 『지나간 미래』, 한철 역, 문학동네.
- 레이먼드 윌리엄스, 2010, 『키워드』, 김성기 역, 민음사.
- 리디아 리우, 2005, 『언어횡단적 실천』, 민정기 역, 소명출판.
- 마루야마 마사오 · 가토 슈이치, 2003,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역, 이산.
- 멜빈 릭터, 2010, 『정치·사회적 개념의 역사』, 송승철 · 김용수 역, 소화.
- 민족문화사연구소 편역, 2000,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사상』, 소명출판.
- 박근갑 외, 2009,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 박명규, 2009, 『국민·인민·시민—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 박상섭, 2008, 『국가·주권』, 소화.
-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소화.
- 야나부 아키라, 2003, 『번역어 성립사정』, 서혜영 역, 일빛.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2006,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 오토 브루너 · 베르너 콘체 · 라인하르트 코젤렉 엮음,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5』, 푸른역사.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편, 2005,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 임형택 · 한기형 · 류준필 · 이해령 외, 2008,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선태, 2006, 『근대의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 소명출판.

- 진관도 · 유청봉, 2010, 『관념사란 무엇인가』, 양일모 · 송인재 · 한지은 · 강중기 · 이상돈 역, 푸른역사.
- 채운 · 이수영 · 김영진 · 신지영 · 이정우, 2009, 『개념어 총서 WHAT 세트』(전5권), 그린비.
- 하영선 외, 2009,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 한림과학원 편, 2010,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초문헌 해제』, 선인.
- \_\_\_\_\_, 2010, 『한국 근대 신어사전』, 선인.
- 『Vita Activa:개념사 시리즈』 총22권, 책세상, 2008~2011.

## 2. 논문

- 고지현, 2001, 「일상 개념 연구—이론 및 방법론의 정립을 위한 소론—」, 『개념과 소통』 제5호.
- 김윤성, 2003, 「개념사의 비교종교학적 유용성—‘순교’ 개념의 분석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제9호.
- 김윤희, 2009, 「1909년 대한제국 사회의 “동양” 개념과 그 기원—신문 매체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2호.
- 김지영, 2010, 「풍속 · 문화론적 (문학) 연구와 개념사의 접속, 일상개념 연구를 위한 試論」, 『대동문화연구』 제70집.
- 김현주, 2007, 「근대 개념어 연구의 동향과 성과: 언어의 역사성과 실재성에 주목하라」, 『상허학보』 19집.
- 나인호, 2002, 「독일 개념사와 새로운 역사학」, 『역사학보』 제174집.
- \_\_\_\_\_, 2007,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Keyword” 연구와 개념사」, 『전남사학』 29집.
- \_\_\_\_\_,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연구」, 『내일을 여는 역사』 제41호.
- 나카무라 순사쿠, 2009, 「근대 일본의 學知와 유교의 재편—근대 ‘知’로서의 ‘哲學史’ 성립」, 『사림』 제32집.
- 류준필, 2001, 「‘문명’ · ‘문화’ 관념의 형성과 ‘국문학’의 발생—국문학이라는 이데올로기 서설」, 『민족문화사연구』 제18집.

- 박명규, 2001, 「한말 ‘사회’ 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체계」, 『사회와 역사』 51집.
- \_\_\_\_\_, 2009, 「네이션과 민족: 개념사로 본 의미의 간격」, 『동방학지』 147집.
- 박상섭, 2009, 「한국 개념사 연구의 향방: 한국 개념사 연구의 과제와 문제점」, 『개념과 소통』 제4호.
- 서규환, 2006, 「라인하르트 코젤렉의 역사이론에 대하여」, 『서양사론』 제91호.
- 송승철, 2009, 「미래를 향한 소통—한국 개념사 방법론을 다시 생각한다—」, 『개념과 소통』 제4호.
- 이상신, 1986, 「概念史의 理論과 研究實際」, 『역사학보』 제110집.
- 이행훈, 2009, 「學問 개념의 근대적 변환: ‘格致’, ‘窮理’ 개념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제37집.
- \_\_\_\_\_, 2011, 「양건식의 칸트 철학 번역과 선택적 전유」, 『동양철학연구』 제66집.
- 하영선, 2004, 「변화하는 세계와 개념사」, 『세계정치』 제25권 2호.
- 황종연, 1997, 「문학이라는 譯語—「문학이란 何오」 혹은 한국 근대 문학론의 성립에 관한 고찰」, 『동악어문논집』 32집.